

1) 베엘의 꿈 (28:10-15)

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
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
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
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
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
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

- 28:10/ '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':
 - * '밧단아람'이 아닌 '하란'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의 부름과 순종을 기억하게 함.
 - * 이삭의 요구와 리브가의 바람에 대한 야곱의 순종.
- 28:11/ '한 곳': 같은 절에서 세 번 등장함으로 이날 밤이 베엘에 갇는 의의를 예견.
 '한 돌': 이 평범한 돌은 아침이 되면 신성한 장소를 표시하게 될 것
 - 일상적인 것을 취해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.
 '해가 진 지라': 마므레에서의 아브라함의 경험,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니엘에서 천사와의 밤샘 다툼의 전조.
- 28:12/ '사닥다리': '술람'-계단이나 사다리. 하나님의 임재와 중재를 의미.
 '하나님의 사자(천사)': * 말하지 않음-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남.
 * 하란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던 보호하는 천사와 같이 야곱을 보호하는 천사.
- 28:13/ '여호와께서... 이르시되': * 13:14-16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의존 - 베엘에서 아브람과 롯이 이동한 일.
 * 언약이 성품이 의심스럽고 가나안에 있던 것도 아님에도 야곱에게 계승됨을 증명.
 '너의 조부 아브라함': 아브라함이 약속의 주요 수신자요 가족 강복의 기원으로 인정하는 것.
 '그 위에 서서': '그 곁에(야곱 곁에) 서서'로도 번역 가능.
 '네가 누워 있는 땅을':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응 (13:17)
- 28:14-15/ '퍼져나갈지며': 야곱 후손의 확산은 약속의 새로운 특징. 바벨로부터 확산된 여러 나라들을 연상하게 함.
 '내가 너와 함께 있어': 이삭이 그랄에 체류할 때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회상.
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지도자와 이스라엘 자체에도 동일하게 보장된 보호.
 '너를 지키며': 가나안 외부의 잠재적인 적대자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함을 암시.
 '내가 어디로 가든지':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날 수 없음.
 '너를 떠나지(버리지) 아니하리라': 언약의 충실성과 관련된 문맥에 등장 (24:47; 신 29:24; 수 1:5; 호 4:10)
 * 이삭의 유산은 아서가 상속한 것으로 보임. 야곱이 의지할 모든 소유는 주님의 말씀 뿐.
 -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함.

2) 베엘의 예배 (28:16-22)

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
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
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
 19 그 곳 이름을 베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

- 28:16-17/ '과연(확실히)', '알지(의식하다)': 깨달음에 대한 두려움(출 2:14).
 *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장소를 침했다는 사실을 깨달음에서 비롯된 두려움.
 '하나님의 집이요': * 이 장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소는 하나님의 성소,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.
 * 하나님의 집은 돌베개가 아닌 이 '장소'를 뜻함.
 '하늘의 문이로다': 야곱은 밤을 보낸 곳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 통로를 발견.
- 28:18/ '아침에 일찍이 일어나': * 야곱의 첫 행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례대로 제의 "기둥"을 세우는 것임을 시사.
 * 야곱도 선친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제단을 세움.
 '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': * 이 기둥을 주님께 봉헌한다는 의미 - 또는 서원의 증거.
 * 이스라엘의 제의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물건이나 사물을 정화.

- 28:19/ '벤엘이라 하였더라... 루스더라':

- * 벤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에 부과된 의의와 보고의 가치를 강조. 같은 표현이 '단'에도 사용.
- * 아브라함 기사에 언급된 벤엘은 이곳 이름을 새 이름으로 수정한 것.
- * '하나님의 집'은 다른 곳에서는 예루살렘을 의미.
- * 후에 벤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모욕의 근원으로 취급 받음('벤아웬'-사악함의 집, 호 4:15: 5:8)

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

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

22 내가 기동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

* 야곱의 세 가지 서원: 1) 하나님의 보호의 임재(20a), 2) 하나님의 예비(20b), 3) 야곱의 안전한 귀환(21a).

1) 하나님께 헌신(21b), 하나님의 장소를 봉헌(22a), 십일조를 바침(22b).

- 28:20-21a/ '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': 야곱은 족장 중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에게 '서원'.

'함께 계셔서': * 보호와 번영을 암시.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스스로에게 부과하신 의무.

* 목자가 양 떼를 이끄는 것, 보초병이 경계를 서는 것, 제사장의 축복(민 6:24).

* 야곱은 후에 이 첫 번째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증명 (31:3, 5, 22; 35:1, 3).

'먹을 떡과 입을 옷': 방랑하는 외지인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.

'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': 야곱이 세겜에 안전하게(33:18) 돌아왔을 때 성취.

- 야곱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주인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연상.

- 28:21b-22/ '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':

*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결속을 확정.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을 회상.

'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': 예배를 위한 단,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약속.

'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': * 주님의 은총에 대한 야곱의 열의.

* 그러나 주님이 부를 주셔야 성취될 축복.

(5) 라반이 야곱을 속이다 (29:1-30)

중요내용

* 밋단아람에서의 야곱의 삶에 대한 기사의 시작. 이곳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머물며 가족과 재산을 얻음.

* 오르내리는 천사의 환상(28:12)과 29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도달하는 여정에 대한 암시:

- 하나님의 통제가 야곱도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함의하며 야곱도 말년에 그 사실을 증언 (48:15-16).

* 또 하나의 돌이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섬세하게 전함.

* 야곱 홀로 거대한 돌을 움직였다는 것, 때맞춰 라헬을 보았다는 것은 주님의 예비와 보호를 확증.

*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짐승들을 보살피 중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확증한 것에 대한 역전.

- 낯선 자가 얻기 어려운 물을 가지고 라반의 목마른 양 떼를 먹이고 있음: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수행할 역할의 전조.

* 야곱과 라반의 집안이 갈등을 겪고 중국에는 상화 평화 조약으로 균형을 이루며 끝남.

- 이 갈등으로 야곱은 번영을 이루고 '적절한 처방약'을 통해 사기꾼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심.

- 야곱은 적수를 만나 '야곱질'을 당하지만 주님은 야곱의 상실을 역전시키시고 라반이 부정하게 얻은 것을 빼앗으심.

- 이들의 분쟁은 '임금'을 둘러싼 것이며, 주님은 아브라함의 '보상'으로 야곱이 배우게 될 교훈.

* 야곱-라반 스토리 끝에 이르러 이 가족은 라반의 적대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.

* 야곱은 하란 체류 중에 주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는 사실과,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때 구원의 근원이 될 것을 깨달음.

1) 야곱이 하란에 도달하다 (29:1-14)

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

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

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

- 29:1/ '야곱이 길을 떠나(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):
 - * '눈을 들어 올리다', '소리 높여 올렸다' 등과함께 사용.
 - * 라헬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된 여행임을 강조.
- '동방 사람의 땅': 가나안 동쪽 민족을 가리킴. '동쪽'은 거부당한 족속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징.
- 29:2-3/ '본즉': 내러티브 배경에 생생함을 더함.
 - '뜰에 우물이 있고': 성읍 바깥에 있으며 라반의 집은 우물 근처에 있었음.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난 곳.
 - '큰 돌': 보호용 덮개. '큰' 돌의 중요성. 벤엘의 돌기둥을 연상 - 주님이 약속대로 야곱 곁에 있음을 증명.
 - '모든 떼가 모이면... 그 돌을 덮더라': 목자들이 양 떼에 물 길는 일을 지체한 관습에 대한 설명
 - 여럿이 옮겨야 했으므로 다른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림.

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
 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
 6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나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
 7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
 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

- 29:4-8/ '어디에서 왔느냐... 하란에서 왔노라': 야곱이 라헬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.
 - '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':
 - * 벤엘의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.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때를 맞춰 리브가가 등장한 것을 연상.
- 29:7-8/ '야곱이 이르되... 가서 풀을 뜯게 하라':
 - * 목자들의 무책임한 행실에 의문을 제기- 주라, 가라, 먹이라는 동사는 야곱의야곱의 거만한 성품을 암시.
 - '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': 이상한 관습을 고수하는 목자들- 그러나 그 때문에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 성사.
 - *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명시적으로 드러났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암시됨.

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
 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

- 29:9-10/ '라헬이...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':
 - * 라헬은 여성 목자였음.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요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.
 - * 레아가 가축 일을 했다는 말이 없는 것은 라헬과의 관계가 야곱-에서와 같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.
- '야곱이... 돌을 옮기고... 물을 먹이고':
 - * 야곱은 라헬이 온 것에 고무되어 돌을 굴러 치우고 짐승들에게 물을 먹임- 야곱의 열의를 반영.
 - *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난 후 주님께 예배했지만 야곱은 힘을 과시-종의 경건과 야곱의 성품을 대조.

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
 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
 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
 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

- 29:11-12/ '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': * '입맞춤'과 '눈물'은 가족의 재결합이나 이별 같은 정서적 사건을 묘사.
 - * 야곱은 자기 정체성을 밝히기도 전에 라헬에게 입을 맞춤.
- '라헬이 달려가서... 알리매': 리브가가 보인 반응. 라헬이 장차 여족장이 될 것을 암시.
- 29:13-14/ '라반이... 달려와서': 아브라함의 종에게 했던 행동과 닮아 있음.
 - '입맞추며': 야곱이 이삭을 숙일 때에 입맞춘 것처럼 라반의 입맞춤도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이 드러남.
 - '영접하여 안고... 인도하여 들이니':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예물을 기억했을 것.
 - '야곱이...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':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과 유사.
 - '혈육(내 뼈와 내 살)': 야곱과 라반 종족 사이의 가족적 유대를 규정.
 -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또한 인도하셨음.
 - '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': 주님의 호의로 외삼촌의 집에서 안식처를 찾음
 - 라반의 교활함으로 인해 감금이 되어 버림.